

제6차 정기총회 개최 및 취임예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제6차 정기총회를 세기총 임원 및 정회원과 국내 및 해외 14개국에서 온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5일(목)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예배를 수석상임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의 기도와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의 성경봉독, 예대미합창단의 찬양과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진행하였다. 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마6:9-10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 통일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기총은 전 세계에 있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2부 정기총회 회무처리는 수석상임회장인 정서영 목사의 환영사, 감사 김춘구 장로의



내빈소개,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의장인사, 상임회장 유영식 목사의 개회기도의 순으로 시작하였으며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회계 보고를 처리하고 시상식과 감사패 증정을 하였다. 시상은 아름다운 목사상에 임재택 목사가, 아름다운 선교자상에 정지현 선교사가, 아웃스탠딩 크리스찬어워드상에 김영진 목사가, 자랑스러운 기자상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부국장이 수상하였으며, 감사패를 하승

주 장로와 김승배님에게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공히 전달하였다.

대표회장 선출은 수석상임회장 정서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신임대표회장으로 박수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임원인준 및 6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과 정관개정 위원 선정의 건을 처리하고 공동회장 심평종 목사가 제6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원로목회자 부흥사회 창립, 기도용사 다짐

원로목회자재단 부흥사회 초대 대표회장에 김재용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수 목사)이 부흥사회(원로목회자 부흥사회)를 창립했다. 첫 대표회장에는 김재용 목사로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선교관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진분 목사(부흥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원집 목사(부흥사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김진호 목사(센델침례교회 원로)의 설교, 이동석·김진옥·한은수 목사의 축사 및 인사말, 대표회장 김재용 목사의 인사, 정한국 목사(부흥사회 총무)의 광고, 저녁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느 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진호 목사는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를 닫는 지도자도 있다”며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이다. 즉, 긍정적이며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지도자”라고 했다.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는 “원로 부흥사회는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

아키는 그런 부흥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은수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총재)는 “과거 부흥사로 열정을 쏟으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셨던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았다. 국내 최초의 원로 부흥사회에 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앞장서서 방황을 제사하는 것발과 같은 분들이 되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것발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본보기와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회장 김재용 목사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가자.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자”고 했다.

한편,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대표회장)는 “흔히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이 있다. 올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로워 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원로목회자부흥사회의 안목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령의 역사 힘입어 ‘영풍’을 일으키자”

영풍회, 실행위원회 및 구국기도회 진행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신석 목사, 이하 영풍회)가 증경단과 전회원 단합을 위한 실행위원회 및 구국기도회를 지난 3월 9일(금) 서울 강동구 중흥교회(담임 엄진형 목사)에서 가졌다.

친교와 애잔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기성 목사(지도자회 회장)의 사회로 신석 목사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정상업 목사의 성경봉독, 서기 김창호 목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특송에 이어 엄진형 목사(증경대표회장)

가 ‘베드로를 통한 성령역사’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구경꾼과 비방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 역사가 임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돌이키고 예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자!”는 표어를

기자로 세운 영풍회 역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한국교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정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독려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스나리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한국기독교영풍회 발전과 회원단합을 위해 이규봉 목사(총보부장), 서대섭 목사(총감사단장), 권영만 목사(사무총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영풍회 단합을 위해 전면에 나선 증경회장 가운데 7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한영훈 목사(한영대 총장)가 등단해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 목사는 “35년 전 각 교단들을 대표하는 부흥사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인 영풍회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는 목적이래 모여 열심히 달려온 단체다. 앞으로도 단합되어 잘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회는 회원간 교류와 친목을 위해 교향성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선교를 위한 해외성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해중재원 개원 10주년 감사예배 드린다

안철상 대법관 격려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축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오는 4월 3일(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예배는 이사장 피영민 목사의 사회로 한국미래포럼 대표이사 박경진 장로의 기도, 남원주침례교회 박도희 목사의 말씀으로 1부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 개원 10주년 축하행사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이 격려사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전달 예정이다.

현재 화해중재원은 일반 민사지선 외에도 각 교단 교회재판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교단의 선거와 대표권 등 권한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있다.

각 교단이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한 재판의 효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정되는 예가 많은데, 화해중재원은 국가의 법과 교회의 자치법규(헌법, 규약, 교회 정관 등의)을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

지구촌 8천5백만 한민족에게 복음을

제1회 코디엠세미나, 세계선교사명 고취

“지구촌에 흩어진 8,500만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자”는 비전을 품고 세워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대표 이충동 목사, 이하 코디엠)는 지난 3월 5일(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코디엠 국제본부에서 코디엠 연구소 주관으로 첫 번째 코디엠 세미나를 서울총신교회와 평신도사역자훈련원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의 새로운 방향과 디아스포라 의식의 영향력’(정영오, UCSD 역사학 Ph.D, 과장), ‘북미 한인교회의 시대적 역할’(문형준, 전 C&MA 한인총회 감독),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운동과 필요로 하는 복음 전해야 할 복음’(김영택, 코디엠 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KODIAM IS’(이충동, 코디엠 국제본부 대표)의 4개의 세션으로 진행하여 각 발제를 통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력으로 코디엠



의 비전을 제시했다.

본 세미나를 주관한 코디엠 연구소 소장 성기호 박사는 환영의 글을 통해 “조직화된 힘과 잘 정리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코디엠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회를 거듭하여 이론적 깊이와 폭을 더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선교 동력화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코디엠이 되자”고 했으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각 발제를 통하여 코디엠

사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단순한 관심에서 더욱 깊은 동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충동 목사는 “앞으로 코디엠 사역을 알리고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세미나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와 사역을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코디엠 사역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동역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내 기독교인 ‘제주도 기독교순례지 탐방’

‘CTS 제주도기도원정대-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 기독교역사 탐방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국내 기독교인 200여명과 함께 내달 4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제주도 기독교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CTS 제주도기도원정대’ 행사를 개설했다.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2018 제주도기도원정대’ 행사는, 지난 2016년 올올도 및 독도방문을 시작으로 여수, 목포, 백령도, 일본 나가사키 등을 돌며 진행한 국토 탐방 기도 행사의 일환이다.

이번 제주도 기독교 역사탐방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1865~1942)와 제주도민 최초 목회자 이도종 목사(1891~1948), 한국최초의 여성선교사 이선광(미상·제주 활동시기 1908~1925)선교사의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선광 선교사의 증손자인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가



진행하는 ‘나라사랑 특별 부흥 대성회’를 제주 동흥교회(담임 목사 박창건)에서 개최한 뒤 최남단 ‘마라도’와 이도종 목사 순교터가 있는 ‘대정교회’, 제주 최초의 자생 교회 ‘금성교회’와 ‘이기풍선교기념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CTS제주방송 송도환 지사장은 “2017년

에 이어 CTS가 제주도에서 기독교역사탐방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제주도내 기독교 성지 및 역사를 찾아 제주도 기독교 성지관광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독교역사탐방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성 원로장로회 제15회 정기총회

회장 신치순 장로, 수석부회장 나용식 장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원로장로회 제15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9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서안양교회(담임 조현우 목사)에서 열렸다. 신치순 장로(14회기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는 윤기순 목사(총회장 직무대행)가 ‘의를 얻는 지의 삶’(롬 13:11~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교회, 그리고 원로장로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택규(안양지방회장), 조현우(서안양교회) 목사의 환영사와 이동석(직전 총회장), 김금윤(마포제일교회), 홍사진(주전양교회)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이강준 목사(교단 총무)가 격려사와 함께 총회소식을 전달하



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처리와 함께 한 해 동안 원로장로회를 위해 봉사할 새 임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번엔 선출된 신임원들의 명단이다.

△회장 신치순 장로(서안양교회) △수석

부회장 나용식 장로(하늘빛교회) △부회장 박진규 장로(운양교회) △총무 이응복 장로(평화교회) △서기 유종봉 장로(주남앞에제일교회) △회계 김남돌 장로(독일교회) △감사 우영기(남부교회), 박승배 장로(시흥중앙교회),

한장총 주최로 19일 필리핀에서 개최

2018 장로교세계선교사대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종현 목사는 지난 3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장로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173명이 참가하는 제1회 장로교세계선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교사대회는 한국장로교단 파송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선교사대회이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임인기 목사)가 주관하였다.

이번에 참가하는 선교사들은 7개 교단, 173명이며 교단별로는 예장통합 39명, 예장

합동 23명, 예장대신 32명, 예장고신 19명, 예장합신 16명, 예장호신 3명, 예장합동중앙 7명이다. 3월 19일(월) 첫째 날에 선교사 파송 교단기 입장식으로 시작하여 선교위원장인 인기 목사의 대회선언, 이어 대회장인 유종현 목사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개회예배는 유종현 목사가 설교를 하였으며 대신 부총회장 이주호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합동총회 GMS이사장 김찬곤 목사, 통합총회 세계선교국장 김지환 목사,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본부장 김중국 목사, 그리고

필리핀 한인선교사협의회 사무총장인 고광태 선교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장로교선교사 발자취를 영상으로 시연하고 함께 하는 선교사들의 합심기도와 축도로 선교대회를 마쳤다.

이번 선교사대회에서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김찬곤 목사는 ‘GMS 선교의 반추와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선교사들의 토의 및 교단별 선교사들의 현지활동에 대한 보고와 전략수립 토의가 이어졌다.

정기지방회 갖고 새 임원진 선출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최남성 목사)는 지난 3월 12일(월) 오전 11시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하며 새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약 3:1~2 말씀을 본문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써 말에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 선생이 되려하기보다 말씀에 먼저 복종하며 영혼들을 섬길 때 권위는 따라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지방회



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광양 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원들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지방회장에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총무에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 서기 겸 회계에 이

태우 목사(새여수순복음교회)를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으로 선출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으로 식사를 하고 회원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 회기동안 서로 섬기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은혜 가운데 정기지방회를 마쳤다.

갈릴리큰소망교회 안수집사 임직예배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3월 5일(월) 오전 11시 울진 갈릴리큰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동교회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를 시작으로 부회장 도

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과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행 6: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직분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와 같이 담임목사를 돕고 교회에 충성스런 일꾼이 되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씀으로 견고히 선 일꾼이 되어 교회의 군

견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 전하였다. 이어서 담임 김영준 목사의 서약과 지방회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약속례와 안수집사 임명 공포와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천양교회)의 축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에 선 교단에서 집사안수를 받는 것을 축하하고, 담임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축만할 수 있도록 돕는 안수집사가 되기를 부탁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새집전교회)는 행 20:35-37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소교회의 장로 같은 일꾼이 되어 목사님과 함께 약한 자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안수집사가 되기를 권면하였다.

이어서 축하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사회자의 광고와 이석호 목사(대구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이날 예배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 준비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월례회 및 김현덕 목사 은퇴 예배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3월 6일(화) 주교소망교회(담임 김현덕 목사)에서 3월 월례회와 김현덕 목사 은퇴감사에 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의 설교에 이어 회장 차흥식 목사(이진순복음교회)의 축사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마 25:21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김현덕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돌아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니 남은 인생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라”고 하였다.

2부 시간에는 은퇴하는 김현덕 목사를 위한 축복기도와 이취운 이별의 교제를 나누며 은퇴감사 예배 및 월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됨 없어 순복음세움교회 새성전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

부산지방회



설교
총회장
김양인 목사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우측 원내사진)는 지난 3월 12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777 순복음세움교회 새성전 예루살렘성

전에서 새성전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제2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부산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1:17-23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으며 새 성전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더욱 힘을 합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부회장 한순남 목사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임직식을 거행했다.

임직식은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의 집례로 정봉권, 이영두 명예장로, 최재윤 안수집사, 정봉애, 정봉선, 송장미 권사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정기영 목사는 예식사를 시작으로 임직자들에게 서약 후,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고 안수위원장 한명정 목사, 안수위원 정기영 목사, 박용호 목사, 고영권 목사의 안수례가 있었으며 안수위원들에 의해 착의, 안수위원들과의 약속례, 담임목사의 임직자들에게 대한 공포가 있었으며 임직파수어 안수집사서약, 권사서약 등의 순서로 임직식을 마치고 3부 축하순서로 이어졌다.

축하순서에서 정기영 목사는 새성전 입당을 위해 헌신한 황복길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옥수 교수의 특송, 바이올리니스트 김보미 교수의 축하연주, 최명식 목사님 최수근 목사의 축사, 정경철 목사의 권면, 이영두 명예장로의 답사, 사회자의 광고, 정구영 목사의 축도로 새성전입당 및 임직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레미야 · 요나서 낭독하며 뜨겁게 기도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3월 13일(화) 경기 팽택 합정동 통미로9번길 30에 위치한 복된교회(담임 서성명 목사)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정미자 목사(센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찬송인도로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와 특송에 사모일동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으며,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성경봉독 후 설교자로 나선 회장 신동숙 목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요나서 3장을 접어한 회원들과 함께 총장의 분량의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시국과 우리 교단 및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어 김순기 전도사(오성사랑교회)의 헌금기도, 증



경지방회장 정석현 목사(명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에서는 회장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지방회 회무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지방회 준비와 기타 제반업무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복된교회에서 예약한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풍성한 오찬의 시간을 가졌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월례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였다.

하늘소망교회 창립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3월 12일(월) 오전 11시 하늘소망교회(담임 백미자 목사)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기도,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삼산 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최 목사는 마 16:13-18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도 주님이시며,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분도 주님이시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



여 병행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창립되는 하늘소망교회가 음성 지역은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창립 선포 지방회 회계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

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증평 순복음교회)와 윤경현 목사(보은 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백미자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이복근 목사(이목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 예배를 마치고 하늘 소망교회에서 창립 첫 주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2018 타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1. 일 시 : 2018. 4.12(목), 19(목) 2회(시간은 세부일정 참조)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3. 대 상 :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로서 연수교육 미필자
4. 등록헌금 : 50만원(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등록마감 : 2018. 4. 6(금) 17:00
6. 연수과목 및 세부일정

4월 12일(목)	4월 19일(목)
11:00~11:50 교단신조 I	11:00~11:50 교단역사
12:00~12:50 점심식사	12:00~12:50 점심식사
13:00~13:50 교단신조 II	13:00~13:50 교단헌법
14:00~14:50 성령론	14:00~14:50 총회행정
15:00~16:00 구원론	15:00~16:00 시험

- 문의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양인 / 총무 목사 엄기설

■ 생명의 말씀 ■



한명점 목사

-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 은혜와평화교회 담임

1863년 12월 런던 대학을 졸업한 스물두살의 토마스(Robert J. Thomas, 1839~1866)는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캐롤라인은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하고 4일 후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토마스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중국 해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중 스코틀랜드 선교사 윌리엄슨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재충전합니다. 토마스는 조선에서 전인한 천주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조선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1865년 9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청진도에 와서 2개월 반을 머물며 한국인 천주교인으로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다시 중국에 돌아가 북경대학 학장 서리를 지내며 조선 선교를 모색하던 중 동지사 일행으로 온 평양감사 박규수를 만나 중국어 성경을 선물합니다. 토마스는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간다는 말

을 듣고 통역관으로 승선합니다. 박규수는 문정관을 파견하여 청국의 허락없이는 외국과 통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토마스는 낙관하였습니다. 그가 1866년 8월 1일 런던 선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에 조사차 이현익이 승선하였는데 그를 가두게 되자 대치됩니다. 배가 양각도에 좌초당하게 되었을 때 박규수는 배에 불을 지릅니다.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자, 군관들은 그들을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받들어 성경을 받으라고 건네줍니다. 박춘권은 칼을 잠시 멈추었고, 토마스는 모래사장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성경받기를 간청합니다. 박춘권은 토마스를 처형하였습니다. 26살의 토마스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만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토마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박춘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여가면서도 자괴감을 느끼는가?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도 생각할 수

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반으로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토마스 목사전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훗날 영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아여태가 읽고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한글 성경 3권의 2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박춘권에 앞서 12살의 최치량은 토마스로부터 3권의 한문성경을 건네받고 급서라는 사실에 겁이나 평양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 질이 좋아 성경을 묶어놓은 실을 다 풀어서 방을 성경으로 도배합니다. 방 전체를 성경으로 도배해 놓았으니 방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식의 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박영식은 죽을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생각이 틀려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장을 보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들어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박영식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고,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최치량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은 박영식이 성경책으로 도배한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넓다리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넓다리교회가 바로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교회의 전신입니다. 평양대부흥이 토마스의 순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신묘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하며, 모진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교당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피와 희생적인 수고가 오히려 즐거웠고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장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은 여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까?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주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순복음신학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돌로 쳐죽이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가야 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주님에게서 전히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무슬림 관광객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주요 종교 모두를 아우르는 종교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교별로 각각 모두 종교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슬림만을 위한 특혜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왜 서울시가 기준도 없이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주어 국민들의 원망과 종교 차별을 선도하는 광역 자치단체로 기억되려 하는가?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처는 분명히 종교차별이며, 이런 행위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청산해야 하는데,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에 종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해도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별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동 정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이 지난 3월 23일(금)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한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사회를 위한 각 종단의 복지활동에 대해 다뤘다.

예정원 제6차 세미나 개최



유아를 위한 기독교 대학 교육 운동을 선도하는 예정원교회 교육연구원(이사장 윤성자, 원장 이정규, 이하 예정원)이 오는 4월 21일(토) 서울시 연지동에서 제6차 기독교유아대안학교 설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정원은 한국교회와 합법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CMTV 김명현 회장 취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문화의 전달자를 자임하는 CMTV(Christian Missionary TV)가 회장 김명현 목사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연다. 김 목사는 이번 CMTV 김효성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독교 문화 전문 방송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봉관 회장, 명예재활학 박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 3월 14일(수)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에서 명예 재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는 임승안 총장과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고 대학 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공로로 이번 학위를 받았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서울시의 무슬림 기도실 마련은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무슬림(이슬람교 신도)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곳(이슬람 성원, 관공지, 대학교, 병원 등)의 기도처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서울시 스스로가 특정종교 우대로, ‘종교차별’을 선도하는 것이 되며,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 사정과 국민 전체의 절반이 되는 종교인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내 무슬림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무슬림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님에 자명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고,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특정종교의 종교행위를 선도하는 것이며, 괜히 굶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씩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이나 관광 안내와 같은 불편사항들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 행위를 위한 시설 설치하는 별도의 문제로 본다. 만약 이들이 불편해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로 안내해도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여행 중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교(國敎)가 없는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다종교국가이다. 그런데

유독 이슬람교를 믿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과잉 친절이며, 사족(蛇足)이다.

혹시라도 그들이 기도처를 바라는 마음에 잠시 불편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슬림의 기도처를 계속 시설한다는 것은 무슬림 이외의 타종교에 대한 차별이며 종교 간 경쟁심을 깨는 것이 된다.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에 종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해도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별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증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 (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17

최정식 목사 // 순복음복음교회 담임, 목회학 박사, 세계교회부흥선교회 대표회장, 몽골 안디옥성경신학대학 이사장, 복경신학교 이사 및 교수, 기독교타임스 편집위원, 성경적 경제부흥 강사



십일조는 경제부흥의 확실한 방법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경제부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거나 그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난을 빚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부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한 십일조의 씨앗을 먼저 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십일조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련해 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온전한 십일조”를 요구하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란 무엇일까? 온전한 것이란,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누리고 병들고 저는 것 흙이 있는 십일조 비슷한 축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 좋은 것 즉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알곡을 원하신다고 집민 3장 9,10절에 말씀 하셨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두시고(신 11:26)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로 규정하고 있는 식물들(신 14:22,23) 외에 보통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심분의 일을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열심은 인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의(義)와 인(仁)과 신(信) 즉 신앙 과 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들을 간과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남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라기시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처럼 십일조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란? 정성과 마음이 결여된 형식적인 것 말고, 변명하고 이유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억지로 말고, 실행한 것 알곡, 좋은 것, 처음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해야 한다. 십일조는 우리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지만, 십일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받을 축복의 씨앗 종자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일조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이른 비와 늦은 비, 신 11:14)을 내려주시

다. 싸이는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고,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심는 대로 종류대로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네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썩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피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사 55:10) 고후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십일조의 씨앗은 온전한 것으로 언제든지 내 밭(내 교회)에 심어야 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이다.

십일조는 결코 하늘에 쌓이는 제물이 아니라 한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온전한 십일조의 씨를 심는 자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대신에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려서 필경은 멸하리라”(신 28:24)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다.

최근 한 기독교신문 기사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40% 이하라는 것과 십일조를 가지고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즉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에 난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교회운용이 어려워져 심각한 것이 아니라 십일조를 올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받을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심각함을 말씀 드리는 것이다. 십일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이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 말라기 3장 10~12절의 말씀처럼 십일조는 경제부흥을 약속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십일조는 열개 중 하나인 십일조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다시 열개를 주시는 번성의 원리다. 또한 개를 심고 이룩하는 내가 갖고, 또 열개 중 한 개인 십일조를 심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열개를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므로 말라기 3장 10~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고 거둬의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깨닫기 바란다.

록펠러는 십일조를 계수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록펠러는 많은 돈을 벌기 전부터 십일조를 정확하게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록펠러 이상의 거부들이 되기 바란다.

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히 13:8).

그러나 믿는 자들의 경제부흥을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십일조 폐지론자들은 십일조가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십일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신앙에 십일조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궤변을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일조는 신학자가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십일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한물과 십일조는 잘 드리는데,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책망하시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눅 11:42).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은 십일조도 제대로 내야 하지만, 공의와 자비와 믿음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주님은 분명히 십일조를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경제부흥의 법적인 십일조의 정신과 목적과 용처에 대해 성경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들이 성경적 경제부흥의 행동의 법칙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적인 축복들을 교회에 부어 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러므로 잘 몰라서 지금까지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못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게로 돌아오라”(말 3:7) 지금부터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 당신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십일조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십일조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영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함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약속에 대한 기대 없이 의무감 때문에 십일조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경제부흥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로 십일조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 6:14)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 개최

교회 공공성 회복 위해 적극적 참여 필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정한일)의 종교인 과세 전문 연구를 위한 공공 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지난 3월 5일(월) 서울 마포구 소재 생명나무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개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춘 운영 정관을 교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운영 정관의 작성과 운영정관 작성 과정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석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교회 안과 밖에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행정적이거나 세부적인 절차 외에도 교회의 운영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정력이 미비하거나 운영 정관 개정 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개정을 미루거나, 온라인상 제공 되는 정관을 대충 수정하여 개정 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 최소의 기본 기준을 무시한 비합법적인 정관이 급조해 만들어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정한일 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 뿐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와 운영 정관 작성에 일반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올바른 운영정관 작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공개강좌 일정은 4월 9일(월) 오후 2시 마포구 대흥동 생명나무교회에서 개최된다.



전국 4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 드려

445명 성도 장기기증 서약해 사랑실천

지난 3월 11일(주일), 전국의 4곳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져, 44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화산교회(담임 목사 이인기)는 본부 사무처장인 김동엽 목사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수원화산교회 이인기 목사는 ‘보이 되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되자.”



라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2010년에 이어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아 두 번째로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수원화산교회에서 이날 295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비전영광교회(담임 목사 이현길)에서도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특히 비전영광교회는 시순절을 맞아 온 성도와 함께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2주간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동백교회(담임 목사 최성균)에서도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뜻깊은 주일을 보냈다. 설교에 앞서 동백교회의 한 성도가 단에 올라 생명나눔의 간증을 나눴다.

11일 주일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전국의 4곳 교회에서 하루 동안 총 445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택 목사는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은원을 보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07205@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이광석 목사
순복음성리교회



총무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서울남부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삼동교회



총무 장복도 목사
은혜푸른나무교회



저무 이진규 목사
예원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이복순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저무 신은수 목사
반석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우성현 목사
은혜로교회



부회장 정윤기 목사
순복음기락교회



총무 이성돈 목사
꿈꾸는교회



서기 이현욱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저무·회계 이선호 목사
돌배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대연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총무 이기성 목사
새소망교회



회계 문문연 목사
소망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최은규 목사
순복음선원목자교회



부회장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총무 전하연 목사
열린복음교회



서기 인형선 목사
순복음미연교회



저무 안재길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회계 최금자 목사
순복음은누리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유석구 목사
에버다순복음교회



부회장 한성윤 목사
순복음성령의교회



총무 이봉기 목사
보리달순복음교회



서기 신근철 목사
구리순복음교회



저무 김정순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회계 김선형 목사
이침빛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신동순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회장 박흥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총무 정미자 목사
샘교회



서기 김호신 목사
순복음전영교회



저무 서정연 목사
복있는교회



회계 최정목 목사
순복음민영교회



부회장 오선주 목사
순복음성리교회

경기중부지방회



회장 김동문 목사
동산중영교회



부회장 이성일 목사
천안교회



총무 최선기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저무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순 목사
대구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과천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호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영식 목사
인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현 목사
인천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권 목사
광명은혜와진리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이규아 목사
산성순복음교회



부회장 오선주 목사
순복음성리교회



총무·서기 유애늬 목사
제일은사랑교회



저무·회계 이경자 목사
민들레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박정식 목사
온선교회



부회장 이정진 목사
다사랑교회



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육준수 목사
향기문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현목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윤희 목사
새생명교회



저무 김경자 목사
기도하는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박세호 목사
양의문교회



부회장 이재현 목사
순복음남서교회



총무·저무 조영만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서기·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령의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대연 목사
서암순복음교회



부회장 이강호 목사
은혜순복음교회



총무 주지훈 목사
주안교회



서기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회계 김복순 목사
양곡진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정순 목사
인천국제순복음교회



총무·서기 조성진 목사
종민교회



저무 김경자 목사
새소망순복음교회



회장 이한순 목사
사랑순복음교회

강원남지방회



회장 정정순 목사
성자순복음교회



부회장 엄기소 목사
진원교회



총무 이성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회계 최정목 목사
성경순복음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윤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임병채 목사
순복음만사행복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성신은혜교회



서기 서병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회계 김중배 목사
교업순복음교회



회장 이한순 목사
사랑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엄기소 목사
은혜와천안교회



부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총무 석인관 목사
하늘사랑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린복음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차흥순 목사
아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임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총무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저무 오우경 목사
순복음경자교회



회계 이인복 목사
순복음송죽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오승순 목사
서안서복교회



부회장 노우석 목사
원인교회



총무 정홍식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서기 유옥 목사
성신순복음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장대교회



회계 한정숙 목사
예수사랑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부회장 김상훈 목사
청주성민교회



총무 오정석 목사
갈렐산순복음교회



서기 이영순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저무 이범주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서기 진현배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최정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
후원순복음교회



총무 김용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신병철 목사
주시령순복음교회



저무 조재현 목사
청대교회



회계 황윤환 목사
예광순복음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황윤환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부회장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총무 권규성 목사
희망교회



서기 이성건 목사
진주열린교회



회계 루정진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경북지방회



회장 이성식 목사
삼일교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들뜬교회



총무 신홍섭 목사
한일대일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저무 윤득주 목사
북울산순복음교회



회계 황윤환 목사
연안순복음교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김영준 목사
갈렐리크순복음교회



부회장 도영수 목사
동해안순복음교회



총무 정진하 목사
태전사랑교회



회계 윤철희 목사
영북한순복음교회

부산지방회



회장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부회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총무 김태주 목사
순복음부산우리교회

성서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발표, 신약성서 1,515개, 단편 1,135개, 성경 674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2017년 12월 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324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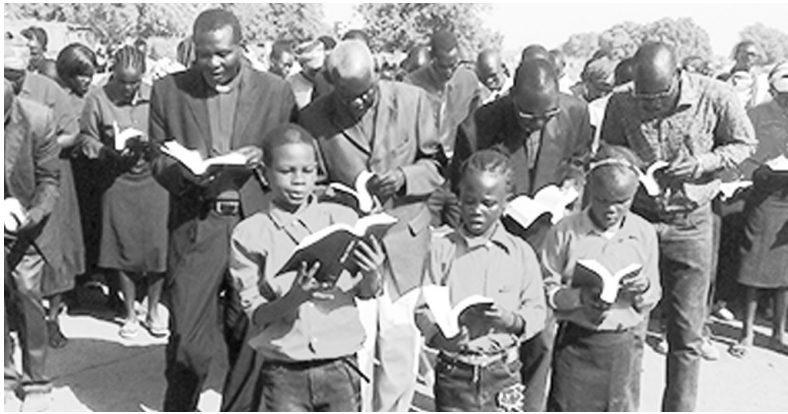
전 세계 7,097개의 언어 중에 성경전서는 67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전서는 1,515개, 단편(쪽복음)은 1,13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끊임 없이 변하고 있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약 1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20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7개, 신약전서는 4개, 단편성서는 9개에 이른다. 더불어 26개의 새로운 번역 및 개정판, 9개의 해설 성경이 새로 나왔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현재 400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번역된 남수단의 마반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하여 2017년 12월 13일에 봉헌되었다. 이 9,320부의 성경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기증되었다.

남수단은 지금까지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마반 성경 봉헌은 예정된 시간보다 2년을 앞당겨 진행되었다. 마반어 성경 봉헌식에는 만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이들 중의 대부분은 난민 캠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남수단성서공회 총무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마반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에 출판한 에티오피아의 기즈(Ge'ez) 신



2017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약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조판한 것으로, 기즈 언어로 된 성서는 1,500년간 사용되었지만 다양한 단편 및 번

역본들이 흩어져 있었다. 2017년 신약성서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며, 기즈 성경전서는 2018년에 제작될 예정이다.

여전히 약 2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3,773개의 언어는 성서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경 번역 책임자는 “첫 번역 성경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원료되었나’ 보다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나’ 하는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81% 사람들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존재할 만큼 성서 번역에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했다.

예총연 신학협, 제16회 신학세미나 성료

“청교도 신앙 본받아 교회 세우는데 목숨 걸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사장 유영섭 목사, 대표회장 강영희 목사, 사무총장 방정웅 목사) 신학협의회(회장 김의경 목사) 제16회 신학세미나가 지난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헌터위에 도시와 교회론’을 주제로 개최됐다.

신학협의회 회장 김의경 목사(열린교회 총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신학협의회 부회장 임윤임 목사(합동개혁총회신학대학원장)의 기도와 신학협의회 부회장 제갈덕규 목사(안파오메가총회신학원학장)의 성경봉독(골 1:24-25), 신학협의회 임원일동의 특송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신학박사 황기식 목사(청교도 신학연구소장, 아산동산교회 담임)가 ‘헌터위에 도시와 교회론’을 주제로 강의했다.

황기식 박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건 청교도들의 태도와 역사를 살펴보고, 이들의 신앙의 특징을 오늘날교회에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영국 청교도는 제도화된 영국국교의 종교행사를 거부하고, 철저한 성경적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칼빈, 브랑에게 배운 그리스도인이자 전제정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가톨릭에서 칼빈주의

신앙으로 개혁하고, 가톨릭의 잘못된 잔재를 제거한 영국의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지칭했다.

황 박사는 청교도들의 특징에 대해 짚어 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들이며, 청교도들의 설교는 삶과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청교도들은 설교의 기능을 명확히 알았고, 설교에 능수능란하며 예화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음을 설명했다.

황 박사는 청교도들의 선교로 조선에서 기독교가 확산된 역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청교도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문맹타파(학무국설치 한글 보급), 신앙운동(새벽기도운동, 성경공부운동, 찬양, 전도운동), 계급타파(민족개명운동), 여권신장(남녀평등, 여성교육), 민족운동(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수양동우회, 독립운동), 사회운동(청년면련회, 애향청년회, 기독교청년회), 구슬타파(무당, 우상숭배, 술, 담배 금연운동, 축첩배지운동) 등 영역 전선을 위해 애썼음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학협의회 부회장 김진명 목사(비브리칼사버신학교학장)의 합심기도, 신학협의회 부회장 전지원 목사(개혁수도총회신학원학장)의 헌금기도, 신학협의회 총무 남상봉 목사(합동개혁총회신학연구원학장)의 광고와 대표회장 강영희 목사의 축도 순서로 마쳤다.



기민협, ‘밝고 명랑한 사회 이룩하자’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2,200권 무상 제공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원종문 목사, 상임총무 윤경원 장로)는 지난 3월 6일(화)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도서 2,200권을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도서기증 감사예배는 김관호 목사의 사회로 윤경원 장로의 기도, 김진호 목사의 ‘자족감이 행복합니다’란 제목의 설교, 박남웅 목사의 축사, 김바울 목사의 격려사, 원종문 목사의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기증, 원종문 목사의 인사, 임정무 대표의 사업안내, 김용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원종문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왕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에 1년에 두 번 정도 도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하면 뜻깊은 일이 되겠다 싶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나부터 깨끗해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과 왕따가 사라지고 미래의 기

동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육성된다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깨끗한 사회로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바울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왕따’ 또는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조명하고 ‘왕따’가 더 이상 왕따가 아닌, 사회적 왕이 되는 아이기로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협의회는 이 책을 각 학교와 아동센터에 기증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독후감을 쓰게 한 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식까지 진행함으로써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로 야기된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해 도서기증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모든 가정에 변화와 성숙을 제공하는 가정행복 발전소”

하이패밀리,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치유상담센터 개소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지난 3월 8일(목) 오전 10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양행 W-스튜디오 내에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드유(with you) 치유

상담센터’ (원장 김향숙)를 개소했다.

최근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범조계, 문화계, 연극계, 정치

계에서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눅 12:15)”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이름을 끌어안아야 한다.

지난 11년간 여성전문치유세미나 ‘타빙유’를 통해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치유해온 김향숙 원장은 본 센터의 책임을 맡으면서 신체심리학자로서 신체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폭력은 몸으로 입은 상처지만 몸, 마음, 영, 가족까지 파괴됩니다. 단순히 언어적 상담으로만 접근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털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심리상담은 상처 입은 몸을 가진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탁월한 치유성을 발휘합니다.”

문의031-772-3223



국내 결혼중개업 전국지사 모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편 165-6)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신은 “매칭 즉 만나게 해주는 일”에 있습니다. 결혼 114는 “매칭문제”를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매칭은 본사 100% 전담, 지사는 영업 전담

-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공유 시스템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셀프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 스스로 화강하는 상대방을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하여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 회원 중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회원이 본사에 매칭을 요청하면 본사 근무 ‘매칭 전문 매니저의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종교별, 지역별, 나이별로 “결혼미팅 파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연간 기본적으로 3회를 제공하며 (최대 8회까지) 한 번 미팅에서 최대 40명의 상대방(8회 참석 320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용과 정직을 다하는 기업 www.결혼114.com은 다릅니다. 12년간의 경험과 많은 투자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결혼중개업체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사명 ♡

- 오직 말씀으로 2. 구제와 선교 3.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후 생활

■ 지사장 조건

- 청년 창업자, 노후생활을 위한 창업자 환영
- 세례교인 이상으로 믿음 목사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
- 온유한 성품과 열정이 있으신 분



■ 결혼114의 서비스 비교분석자료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35만원	3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1년)	4화+3화~5화+5화	셀프 매칭 무제한	5화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결혼 114의 약속 ♡

본사가 홍보하여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1인당 5만원씩 적립하여 매월 전체 지사 1/N의 일로 분배하여 지사 계약기간 중에 기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신사업의 기회(추가수입)

- 해외 여행업 2. 국제결혼중개업 3. 국제결혼신문

■ 협력업체 모집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 계신 업체로서 부담 비용일체 없이 상담 후 업무협약서 체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정정보도 촉구

CBS 보도 허위, 왜곡 반박 기자회견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는 지난 3월 8일 CBS 교계뉴스 시간에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폭력 의혹' 뉴스 보도와 관련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내용에만 편중되어 방송됨으로써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이의 시정(삭제 또는 정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은 2017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시간번호 2017 고정1114'에서 허위 사실로 확정 판결된 사건으로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1000원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판결문과 함께 제시했다. 또 이 판결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함께 선고되었다.

산창교회 담임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은 지난 3월 15일(목) 서울 종로 민들레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명백한 법원 판결문이 있음에도 CBS가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와 관련기사의 삭제, 정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A씨가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 목사는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조 목사의 시모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진정한 바 있었으며,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2016년에는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피와 관련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고, 당시 시무하던 경성교회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했었지만, 성지교회 취임이 결정된 상황이었어서 결국 경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근거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거듭하여 CBS에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본 관련 기사를 즉시 삭제 및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55회 다솜이가족사랑캠프FOR 성료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희망 다지는 계기 마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한국생명의 전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다솜이가족사랑캠프FOR'가 지난 3월 10일(토) 강화도에 위치한 그레이스힐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제55회 캠프는 전국의 8~19세 자녀가 있는 가족,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 가능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부모, 자녀 대상 프로그램인 가족레크리에이

션, 희망케의 만들기, 행복한 부모코칭, 새생명체험, 점핑클레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30가족의 참가를 목표로 2018년의 새로운 한 해를 가족과 함께 시작하며 가족과 희망찬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자 발굴 · 훈련, 한국교회 깨운다

영혼구원을 위해, 가족까지 영접기도, 교배를 붙이고 전도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놀라운 능력전도 '가족세트 전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도용품 전혀 없이 돈 안들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족까지 전도되는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보내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현대그룹 창업자 故 정주영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전군 송전면 아산사에서 출생했다. 학력은 송전초학교가 최종학력이나 지금의 초등학교가 최종학력이다.

많은 어록을 남겼지만 최고의 어록은 "이봐 책임자 해보거나 했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기업을 일으킨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시골저급품을 높이기 위해 벼 수확량의 확대가 시급한 때 정주영 회장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서산 A.B지구 매립허가를 받아 간척사업을 시작한다. 총길이 7.7킬로미터의 바다를 막아 4,660만 평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대공사였다. B지구 마무리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A지구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9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와 8.2m의 빠른 유속으로 독을 쌓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정 회장은 고철로 버려진 23만 톤급(길이 322m, 높이

27m) 폐선박을 끌고 와 물길을 막아버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다. 이 공법을 보고 세계가 전사를 보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리하여 단일농장으로는 세계최대규모이며, 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게 되었다.

정주영 회장이 이때 한 말이 그 유명한 "가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없지만 가는 자에게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난 오늘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법을 보고, 또 10만 명의 전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깨운다는 큰 비전을 보고 들으면서 분야는 다르지만 위대한 한국을 일으켜 세운 정주영 회장의 놀라운 비전과 닮아 있음을 느꼈다. 정 회장은 기업을 일으켰지만 박영수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기업을 일으키고 있는 행동하는 전도자의 본을 보여주며 있어 참으로 세계교회에 꼭 필요한 위대한 분야에서 꼭 와서 가족세트전도법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추천한다.

문병기 목사/세트전도 서울본부장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월드비전, 취약계층 아동지원 캠페인

위기아동 위한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전달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 서울남부지역본부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 6일(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사업비 전달식에는 월드비전 서울남부지역본부 전제현 본부장과 한상승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월드비전 서울남부지역본부가 전달한 사업비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 이동을 돕는 '행복한 힐링버스' 사업에 사용한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아절을 제공하는 '이집터요' 사업에 1500만 원, 위기아동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월드비전 서울남부지역본부 전제현 본부장은 "여러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중 2013년 9월 시작한 행복한 힐링버스는 관내 총 61개 초·중·고교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6년째 성공리에 운



영되고 있다."며 "월드비전은 사랑의 빵 캠페인 모금액의 1/3을 행복한 힐링버스 사업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 후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서로 다른 지구마을, 공간과 배려로 세계시민되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아동지원, 아동 인성 교육, 행복한 힐링버스 등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 2018년 2차 이사회 개최

‘남북 간 산림교류의 중요성’ 주제로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OGKM 대표회장 전용재)는 지난 3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중구 정동컨퍼런스탈개비에서 평창올림픽 후 남북한 산림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주제로 2차 이사회를 가졌다.

정현일 상임이사(사)와 김영진 상임회장(전 본부장의 기도로 시작된 회의에서 전용재 대표회장(전 감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종교간 교류와 함께 북한 통일화합나무심기운동 전개를 통해 평화의 나무를 심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상임회장(전 본부장(전 농림부장관)은 "남북 간 평화와 대화를 열어가는 데는 북한나무심기 등 산림영역 남북교류가 가장 중요하기에 잘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종열 상임회장(전 통합 총회장)과 김희신 상임회장(예정 피어선총회 총회장)은 각 각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북한 나무심기를 통해 그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원종문 이사(기독교시민운동협 대표회장)는 "북한

나무심기를 위해 지자체와 학교기관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현일 상임이사는 "한국교회의 북한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 OGKM과 평화와 통일을위한 연대 등 북한나무심기 유관단체와 장단기 통일화합나무심기 준비를 계속하기로 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 운영이사로 박준철 이사장(우리하나재단)을 위촉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체험담

안산거주 김OO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목치름**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세미나

및 야유회



녹동순복음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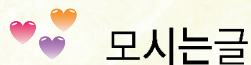
|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4월 4일(수) 아침식사까지

| 장 소 | 녹동순복음교회(백영자 목사 시무)
전남 고흥군 녹동 신항8길 17-5 교회 : 010-3638-0120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여교역자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순종하며 걸어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랫녘의 꽃 소식에 잠시
우리에게 더 멀리가기 위한 쉼이 필요함을 느껴봅니다.
2018년도 총회산하 여교역자국 회원님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야유회를 겸한 세미나를 남쪽 고흥 녹동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교역자국 임원 올림 -

2018년 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06:00		새벽예배	아침식사 후 출발
07:00		아침식사	
08:00		고흥관람 (산책로포함)	
09:00		점심식사	
10:00		갯벌체험	
11:00			
12:00			
13:00			
14:00	등록, 숙소배정		
15:00	개회예배		
16:00	설교:정부용 목사(고문)		
1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8:00	세미나	부흥회	
19:00	강사:임종달 목사		
20:00			
21:00			
22:00	기도회		
23:00			
24:00			

1.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3월 11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춘계모임은 야유회 위주로 진행됩니다. 먼 거리 여행이라,
바닷물 상황에 따라, 부득불 2박 3일이 되었습니다.
※1박 2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3일 점심식사 후 터미널로 모셔다 드립니다.
 3. 경기,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지방회별로 출발하셔도 되며,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은 서울 대림벤엘교회로 오전 9시까지 모여 주시면 됩니다.
(※단 버스 이용시 왕복 2만원 회비를 받습니다)
- ※갯벌체험을 위해 여벌옷과 신발을 준비해 주세요.



조 작 임원 단 전 국 지 부 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행정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신벤엘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종교회 조은주 목사	주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광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영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창주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기교회 정애숙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한자 목사	민음교회 이경자 목사B	장성현생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서 목사	대성산기독교회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통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현선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김명자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 국 여 교 역 자 국

국장 한순남 목사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개헌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말하면서,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은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소문들이 돌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쪽에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지난 3월 13일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시안을 올리게 된다. 이에 발맞춰 대통령은 개헌에 대하여 서두르는 형국이다. 이 시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바, 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의원 정종섭)과 <비헌개헌국민연합>(공동대표 최대균, 김승규, 정성진)에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자문위원회 개헌 시안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대균 공동대표(서울대학교 헌법학 명예 교수)의 개회사(서면)와 김승규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좌장을 맡은 정종섭 의원(자유한국

당)은 10만 명이 증가하였고, 지방에서의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지출이 5배, 국가지출이 3배나 증가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역사적으로 분화적으로 지방분권의 조건이 오래전부터 갖춰져 있으면서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부패가 늘어나서, 지자체 숫자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하고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시행하려는 개정안 중에서 제40조의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인데, 지방분권을 하므로, 행정, 입법, 사법권을 지방자치에 주게 되면, 이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서, ‘헌법적 금지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법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박희권 전 대사는 스페인을 예로 들면서, ‘스페인인은 역사적으로 고도의 지방자치에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에 ‘사법권’이 없으므로 연방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심력(지방분권)과 구심력(단일국가 형태)의 조화가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지역준 변호사는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어 ‘지방분권’이 강조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개헌의미가 무엇이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삼권(입법 사법 행정)을 갖게 되면, 입법기관인 국회는 존재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개정헌법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부칙”에서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 또는 선거 시기에 관련해서, 즉시 시행하지 않고 경과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굳이 당장 개헌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가 있었고, 토론에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박희준 대사(전 스페인) 지역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광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분권을 실시해 왔는데, 2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없이, 느닷없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 위장자들의 권력팽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지방분권화를 시행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2009년 프랑스는 25년간 시행한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에서, 프랑스 회계원장이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은 효율적이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못했다’고 평가했었다.

그리고 국가경영 보고서에서도 ‘지방분권을 실시한 25년간 지방에서의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만들었을 때, 위험 소지가 있으면, 그 많은 법률 어떻게 법률 심사’를 하였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올린 시안은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기초적으로 사용했다는 사례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유민봉 의원은 ‘한국인은 전체가 관찮다고 생각하면, 부분적인 것은 눈여겨보지도 않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것을 검토하여, 전체를 만들어 간다’고 지적하였다. 또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인데, 이 시안은 연방제가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에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므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준현 교수도 ‘지방 자치는 주권의 분권이 아닌, 행정권의 분권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단일주권 원리가 헌법에 적용되어온 ‘헌법의 핵’인데 지금 정부안은 ‘헌법 개정의 한계 밖에 있는 사항’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원심력(지방분권)으로 국가를 해체

이날 토론을 종합해 보면,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런 핵심적인 것은 소외되었다.

즉 ‘지방 분권’으로 개헌하려 하므로, 연방제로 가려는 의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주게 되면, 세수(稅收)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법률들이 만들어져, 오히려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분오열 쪼개지는 이상한 형태가 될 것인데,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몰아붙이기’식의 개헌은 지양(止揚)해야 하며, 국민들은 개헌 자체가 아닌, 개헌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헌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개진해야 한다.

개헌의 주체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의 주권을 앗아가고, 국가의 형태마저 바꾸려는 초헌법적/탈헌법적 형태의 ‘관계개편’은 없어야 한다.

사 설

부활의 소망 온 누리에 가득하길

현재 국제 공인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지만 북한이 여러차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 확산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총체적 위력은 지구촌을 몇 번이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미국과학자연맹을 비롯한 분석기관들은 전 세계에 약 2만 2천기 이상의 핵탄두가 현존하며 이 가운데 약 8천기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에 의하면 그 중 2천기의 핵탄두는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즉각 발사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최근 남북, 미북 대화의 분위기를 틈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우회책이 남발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측의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 더욱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북핵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는 조금도 변한 게 없다.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지나친 낙관론으로 각종 남북교류, 지원, 경제협력 등의 선부는 우회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염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상간 대화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오랜 동안 우리는 북한의 끝도 없는 거짓말에 많이도 속아왔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 교류와 지원, 경험은 물론 그 어떠한 평화체제 논의는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디워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5-47)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물매와 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한 두 해 속아

온 것이 아니다. 무모하다 할 만큼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기만과 술수에 속아왔다. 이제라도 우리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저들을 대해야 한다.

다시 부활절을 맞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저의 몸이 단지 생명이 다시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몸이 되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석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몸의 부활과 새 에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언약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소식만이 우리 주위를 둘러 에워싸고 있는듯하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 해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손 놓고 그저 바라만 볼 수만은 없다. 우리 인류에게 새 소망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 어려운 때일수록, 많이 철쭉같이 어두울지라도, 사막의 모래 폭풍이 퍼터 앞 시야를 가리울지라도 우리는 사망권제 이기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공격 위협 아래 놓인 대한민국은 어느 때 보다 죽음의 전쟁도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나날을 살게 되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급식하며 기도하자. ‘부활 생명의 주님이시여! 저 사탄의 계계를 저지해 주시고 북한핵무기들이 안전하게 폐기되며,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읍,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임원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 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있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

당자는 제출자의 입회하여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회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입후보자가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사에는 선관위는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부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총회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1.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2.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10.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18. 3. 30(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의섭 목사
(010-8145-445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20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장 목사 김양인
총무 목사 엄기설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